

1

제시문 가,나,다는 공통적으로 개인의 행복과 타인의 행복 간의 관계를 주제로 삼고 있지만, 세부적인 면에서 차이를 보인다.

제시문 가의 로마인들은 개인의 불행은 사회구조에서 비롯된 문제가 아닌 운명에 따라 누구나 맞이할 수 있는 문제라고 생각했다.이를 통해 개인의 행복도 개인만의 문제로 간주했음을 추론할 수 있다.개인의 행복은 운명의 결과이며,타인과 무관하다는 것이다.또한 개인이 행복을 추구하는 방법으로 자신의 지위에 충실할 것을 강조했다.

반면 제시문 나,다는 개인의 행복과 타인의 행복은 서로 연관되어 있다고 본다.제시문 나에서는 남편과 아내의 행복이 대립의 방식으로 연관되어있다.남편이 자신의 행복을 추구함으로써 아내는 경제적 부담을 전가받아 불행해졌다.반대로 아내가 행복을 추구하고자 이혼을 요구하자 남편은 사대부로서 사회적 규범을 지켜야 한다며 이를 반대한다.이때 아내는 자신이 불행한 원인을 남편의 행동 뿐만 아니라 일방적인 신의를 여자에게만 강요하는 사회 제도로 꼽고 있다.이는 운명론적 사고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제시문 가의 로마인들과 비교되는 능동적 태도이다.

제시문 다는 개인과 타인의 행복이 상호작용의 방식으로 연관되어 있다는 것을 전제로 삼는다.여기서 공리의 원리란 개인 또는 공동체의 행복이 증감되느냐에 따라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것을 말한다.이에 따라 행복의 총량을 최대화하는 행위는 공리의 원리에 부합하는 행위이다.

이때 제시문 나와 다 또한 개인의 행복과 타인의 행복이 상충될 경우 입장의 차이를 보인다.제시문 나의 아내가 이혼을 요구하는 행동은 남편의 공평하지 못한 행동으로 인해 아내가 불행해졌으므로 이를 극복하기 위한 타당한 행동이 된다.그러나 제시문 다의 입장에서는 아내가 비록 불행하더라도 남편을 비롯한 공동체의 행복이 증진된다면 아내의 불행은 용인될 수 있다.반대로 이혼을 요구하는 아내의 행동으로 인해 남편과 공동체의 행복이 감소된다면 아내의 행동은 옳지 못한 것이 된다.

2

제시문 라는 27개국 국민들의 행복도를 나타낸 표이다.이때 표의 x축에 해당하는 평균은 국가당 총 행복량을 국민 수로 나눈 것으로,이는 각 국의 행복량의 크기를 나타낸다.표의 y축에 해당하는 표준편차는 각 국 내의 행복도가 얼마나 평등하게 분포되어 있는지를 나타낸다.

이에 따라 국가군 B는 x축의 산술 평균 이상의 평균 행복도와 y축의 산술평균 이상의 표준편차를 가지는 집단이다.반면 국가군 C는 x축의 산술 평균 이하의 평균 행복도와 y축의 산술평균 이하의 표준편차를 가진다.

제시문 나는 행복량이 극대화된 현상 보다 개인간의 편차가 작은 행복의 양상을 더 바람직하게 보고 있다.인간은 사회적 동물이므로 타인과의 비교를 통해 자신의 행복의 양을 측정하고,이를 통해 행복이 추가되거나 감소되기 때문이다따라서 제시문 나의 입장에서는 총 행복량은 상대적으로 낮지만 집단 내 개인들간의 행복량의 차가 작은 국가군 C가 이상적인 국가에 해당한다.

제시문 다는 개인간의 편차는 중요시 하지 않고,공동체가 가지는 행복량이 최대가 되는 행위에 초점을 맞추는 입장이다.개인들이 가지는 행복의 총합이 곧 공동체의 행복량이므로 공동체가 가지는 행복량의 극대화에 주력하면 된다는 것이다.이때,제시문에서 행복의 극대화라는 목적을 이루기 위해 소수의 희생은 용인된다는 주장은 하지 않는다.그렇기 때문에 행복량이 최대라고 해서 개인간의 편차가 극단적인 국가군은 제시문 다의 입장에서 이상적인 국가군이 아니다.이를 토대로 본다면 평균 행복량이 전체집단의 평균 이상이면서 표준편차,즉 집단 내 행복의 편차가극심하지 않는 국가군 B는 제시문 다의 입장에서 이상적인 국가군이 될 수 있다.